

# 2018년 주요업무계획

2018. 3.

국립국악원

## [ 목 차 ]

I. 일반 현황	1
II. 2017년 평가	4
III. 2018년 정책 방향	7
IV. 업무 계획	9
1. 국악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	9
2. 향유의 일상화	13
3. 세계 속 국악 교류	16

# I. 일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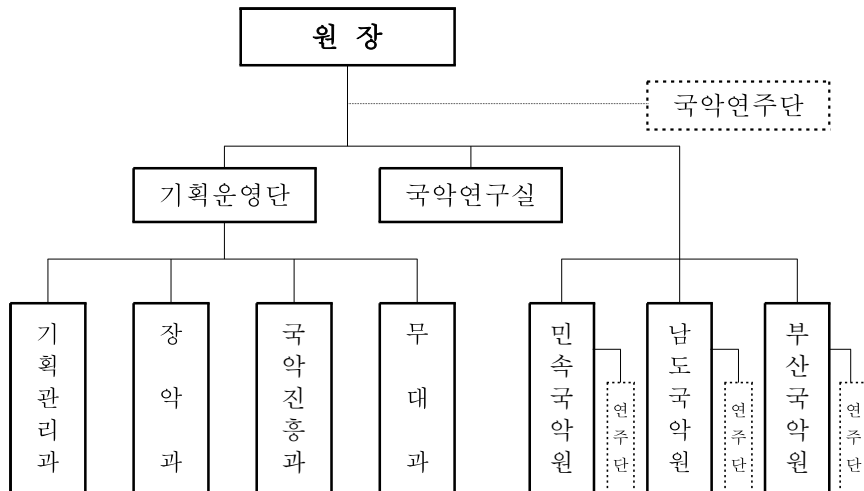
## 1 연혁

- 1951. 4 국립국악원 개원(부산)
- 1967. 12 국립국악원 장충동 청사 이전
- 1987. 12 현 국립국악원 청사 이전(서울특별시 서초동)
- 1992. 3 국립민속국악원 개원(전라북도 남원시)
- 2004. 7 국립남도국악원 개원(전라남도 진도군)
- 2008. 10 국립부산국악원 개원(부산광역시 연지동)

## 2 임무

- 한국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
- 전통예술의 교육·연구·공연을 통한 진흥
-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국악의 보급·발전

## 3 기구 (1단 1실 4과, 3개 지방 국악원, 국악연주단)



## 4 정원 (2018. 3월 23일 현재, 정원/현원)

구분	계	일반직	연구직	단원
총계	161/152.5	119/112.5	42/40	466/434
국립국악원	90/87.5	64/61.5	26/26	246/233
민속국악원	24/23	19/19	5/4	90/80
남도국악원	24/21	18/16	6/5	50/45
부산국악원	23/21	18/16	5/5	80/76

## 5 시설

구분	시설 규모		주요 시설	
	대지면적	연면적	공연장	기타 시설
국립국악원	41,798㎡	36,623㎡	예악당 12,287㎡(706석) 우면당 3,879㎡(231석) 연희풍류극장 2,726㎡ (풍류사랑방 130석, 연희마당 600석)	국악박물관 3,899㎡ 국악연수관 3,005㎡ 사무연습동 10,825㎡
민속국악원	14,304㎡	9,391㎡	예원당 1,488㎡(652석) 예음헌 275㎡(100석)	교육연습시설 2,117㎡
남도국악원	125,361㎡	10,086㎡	진악당 4,593㎡(586석)	교육연구시설 2,716㎡ 숙박시설 1,907㎡(144명)
부산국악원	21,350㎡	20,642㎡	연악당 4,017㎡(695석) 예지당 862㎡(276석)	교육연습시설 333㎡

## 6 재정

### 가 | 세입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내역	2017 예산	2018 예산	증△감	
				증감액	%
세입	총계	1,648	2,018	370	22.4
	대관료	631	693	62	9.82
	입장료	500	562	62	12.4
	대여료(물품·장비)	141	161	20	14.1
	잡수입	376	602	226	60.1

### 나 | 세출

(단위 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7 예산	2018 예산	증△감	
			증감액	%
총계	68,739	68,350	△389	△0.6
○ 국립국악원 운영	38,296	38,858	562	1.5
국악원 전속단체 운영	21,613	21,883	270	1.2
공연 및 홍보	7,063	6,975	△88	△1.2
교육 및 연구	3,014	3,958	944	31.3
시설관리	6,606	6,042	△564	△8.5
○ 국립지방국악원 운영	18,404	16,322	△2,082	△11.3
민속국악원 운영	4,785	4,246	△539	△11.3
남도국악원 운영	5,629	4,736	△893	△15.9
부산국악원 운영	7,990	7,340	△650	△8.1
○ 국악원 공연연습장 건립	1,004	923	△81	△8.1
○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	1,313	1,630	317	24.1
○ 인건비·기본경비	9,722	10,617	895	9.2
국립국악원 인건비	8,681	9,615	934	10.8
국립국악원 기본경비 (총액인건비 대상)	244	274	30	12.3
국립국악원 기본경비	797	728	△69	△8.7

## II. 2017년 평가

### 1 성과

#### □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창작공연 개발로 대중성과 예술성 확보

- 대표 브랜드 대형 신작 제작
  - 산대회(3월), 세종의 신악(5월, 12월) 영화를 만난 국악 판타지 꼭두 (10월), 대청여관(부산), 나운규, 아리랑-시즌2(민속), 윤림산방-구름으로 그린 숲(남도)
    - \* 객석점유율 증가(23.5%↑): 2016 '현의 노래' (65.97%) → 2017 '꼭두' (89.47%)
- 초기 창극 형태의 스테디셀러 음악극 제작
  - 작은 창극 '그네를 탄 춘향'(5월, 12월) <2014년 수궁가, 2015년 흥보가, 2016년 심청가>
- 자연음향 기반 재개관 기념 공연- 우면당, 새 길을 걷다(2월)
- 요일별 특화된 상설공연 정착
  - 다담(문화가 있는날), 수요춤전, 목요풍류, 금요공감, 토요일명품 등

#### □ 국악교육·체험을 통한 국악 생활화 및 미래향유자 개발

- 공교육 연계 프로그램 확대 및 생활음악 개발 및 보급

공교육 연계	▲청소년 연합 '국악오케스트라' 창단(9월, 84명, 서울시교육청 연계), ▲초·중등 국악관현악 축제(11월), ▲찾아가는 교실음악회 '국악배달통'(16개교, 330회), ▲자유 학기제 연계 선택프로그램 운영(16개교, 694명)
생활 음악	▲의식음악 제작(애국가, 국기에 대한 경례, 목념) ▲프로야구 응원가 음원 제공 및 보급(LG 트윈스) ▲유아동요 국악버전 제작(3곡)

- 생애주기별 국악교육·체험·공연 프로그램 운영

유아~ 청소년	▲유아 및 청소년 국악체험, ▲토요국악동화(3~5, 9~11월), ▲'책 먹는 여우'(5월), ▲'뽕뽕방귀쟁이 뽕함마니'(2회, 남도), ▲어린이 국악교실 '푸르미르'(31회, 59명)
중장년 등 일반인	▲서울시 50+ 재단 연계 시니어 교육, ▲가족국악강좌, ▲국악아카데미(일반인, CEO), 온라인 e-국악아카데미 운영

- 향유의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국악
  - 소외지역 및 복지관(달리는 국악무대, 4회 550명, 민속), 장애청소년 국악강좌 강사 지원(6개교 74명), 외국인 국악강좌(24회, 110명), 군부대 장병 등

## □ 고품격 국악콘텐츠를 활용한 국악의 세계화

- 평창 동계올림픽 D-100 기념 및 성공 개최 기원 해외 공연(11월)
  - 미국 LA/성화봉송 주제가, 국악관현악 '프론티어' 등 7곡
  - 스페인·벨기에·프랑스/풍류음악, 강원도 민요 등 5작품
- 세계인과 함께 국악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국악 문화교류 확산
  - 스페인 한국악기특별전 및 기획공연 개최('17.10~'18.6)
    - \* 바르셀로나 악기박물관 내 한국악기 전시 개막 및 기념공연('17.10월)
  - 미국 현대음악 작곡가의 창작 초연 국악 관현악 공연 개최
    - \* Pacific Rim Music Festival 참가 및 UC 버클리 젤러바흐 홀 국악 공연(10월)
  - 유럽 한류 확산을 위한 영국 런던 코리안 사운드 공연(4·6·8월)
- 세계 문화 속에 우리 국악을 알리고 교류하기 위한 국악교육 운영
  - 문화원 연계 해외국악문화학교 운영, 해외 입양자 및 해외 전문가 초청 국악연수

## □ 국악 학술 기반강화 및 콘텐츠 서비스 확대

- 국악의 보존 및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강화
  - 실내악용 태평소 특허 등록, 자연음향을 위한 국악관현악 렉처콘서트 개최 (3회)
  - '북한의 민족무용'(9월), '2017 국악학 학술회의'(9월), '공연예술 영상 아카이빙과 활용' 세미나 개최(11월)
- 소장자료 아카이빙을 통한 콘텐츠 온·오프라인 대국민 서비스 확대
  - 서초 30년 아카이브 10년 특별전 개최 (국악박물관, '17.12~'18.4)
    - \* 국악아카이브 수집 기록으로 본 국립국악원 서초동 30년의 역사 전시 도록 발간(600부)
  - 온·오프라인을 통한 보유 콘텐츠 국내외 서비스 제공
    - \* 아카이브홈페이지(국문) 6만점, 유튜브(국영문) 2천점, 구글 아트앤컬처 온라인 전시(국영문) 2건

## 2 한계

### □ 정통성과 특수성을 담은 공연의 지속적 개발 필요

- 창작의 원천이 되는 전통예술 원형의 무대작품화 한계
  - 창작 기획공연에 비해 국악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연 작품 부족
  - 국립국악원 대표 브랜드 <태평서곡>('04년 초연), <세종조 회례연>('09년 초연) 등을 재공연하여 레퍼토리화 필요
- 단발성 기획 작품이 아닌 지속성 있는 대표 작품 기획 필요

### □ 공연예술기관으로서의 공연 및 전시환경의 시대적 한계

- (예악당, '96 개관) 20여년이 지난 현재, 급격한 공연환경의 변화와 트렌드에 맞는 최적의 공연환경 서비스 제공의 한계
  - \* 롯데콘서트홀 등 최근 민간에서는 자연음향 공연장 등 쾌적한 공연시설과 첨단 무대장비를 갖춘 최적화된 공연장을 선보이고 있음
- (국악박물관) 당초('95) 교육연수용 건물에서 박물관 시설로 용도 변경한 시설로, 박물관 기능으로서의 구조·기능적 한계
  - 비효율적 관람 동선,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콘텐츠 전시 한계
  - 소장품 수장 공간 부족 및 전시실 향온향습 시설 미확보로 유물 등 훼손 우려

### □ 국립전통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대책 시급

- 조직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
  - ▲기관장 직급 상향(고공 나급→가급), ▲국악연구실 확대 개편(1실→1실+2과, 과장급), ▲아카이빙 사업 확대에 따른 전산인력 보강(전산 사무관, 주무관)
- 국악저변 확충 및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원 확대 필요

### □ 국악콘텐츠의 체계적 수집 및 활용 기반 미비

- 국악분야 전반의 컬렉션 구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콘텐츠 생산 체계 부재
- 국악콘텐츠에 대하여 이용자가 쉽고 종합적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의 접근성 및 활용도 향상 필요

### Ⅲ. 2018년 정책방향

#### 1 정책 환경

##### □ 문화예술 강국으로서 전통예술의 가치 증대

- 전통예술은 문화콘텐츠로서 활용 가치 증가
  - 21세기 이후 경제 성장의 핵심은 문화산업으로, 역사성과 예술성을 지닌 전통문화는 경쟁력 있는 산업 콘텐츠로 인식
- 정부 정책으로 전통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국민적 향유 강조

##### □ 여가 수요의 양적 확대에 따른 문화적 욕구의 질적 다양화 요구

- 고령화에 따른 노인 여가 참여 확대, 쉽표가 있는 삶 추구 등 문화적 욕구 지속적 증가
  - 이로 인한 새로운 국악 소비자 유입 가능성 기대, 국악콘텐츠의 고품질화 및 다변화 필요
- 보편적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장애인 및 소외계층과 문화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

##### < 관련 국정과제 등 >

- (국정전략) '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'
- (국정과제) (67) '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며 생활문화시대'
  - \*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각종 사업 확대 명시
- (문화비전2030) 문체부, 새 문화정책 기조 '사람이 있는 문화' 발표 (17.12.7)

##### □ 상호협력 및 교류를 위한 국악플랫폼 역할 필요

-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국악의 공연, 학술, 교육, 향유 환경을 위한 대응전략 필요성 제기
-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 상호협력으로 업무 효율화 및 시너지 극대화 전략 필요
  - \* ▲(콘텐츠) 무형문화재 보존회, ▲(교육)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, 문화예술교육진흥원, ▲(지역) 예술의전당, 지자체 등

#### 2 대응 방향

- ◆ 전통예술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을 통하여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국악의 동시대성 회복
- ◆ 국악 향유자에 대한 폭넓은 지지층 확대 및 콘텐츠 다양화
- ◆ 국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국악플랫폼 구축

#### 비전 **일상에서 즐기는 우리 국악**

목표	이용객 수 증대	객석점유율 확대	고객 만족도 제고
	43만 명('17) ⇒ 45만 명('18)	90.1%('17) ⇒ 91.0%('18)	92점('17) ⇒ 92.5점('18)

전략	보존 및 창조적 계승	추진 과제	1. 전통에 기반한 공연 활성화 2. 공연 프로그램의 다변화와 특성화 3.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국악학 및 국악기 연구 4. 국악콘텐츠의 체계적 수집 및 서비스 고도화
	향유의 일상화		1. 국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2. 생활국악 확산 및 콘텐츠 개발 3. 접근성 강화 및 고객 서비스 확대
	세계 속 국악교류		1. 세계인과 함께 하는 국악 2. 국제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

## IV. 업무 계획

### 1 국악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

#### 현황 및 문제점

##### 양적 → 질적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전 제작 시스템 도입 필요

- 공연 횟수 증가와 상설공연 정착에 따라 공연장 가동률 및 관객수는 증가하였으나, 질적 완성도 및 체계적 운영상 변화를 요구
- \* 공연횟수: '15년 358회→'16회 384회(7% 증가), 관람객 수: '15년 169,418명→'16회 172,620명

##### 지속 가능한 레퍼토리 정착 및 관광객 대상 공연 확대

- 신작 공연의 재공연율이 낮아 레퍼토리 정착 및 예산 효율성 저해
- 관광객 대상 국악공연 콘텐츠 부족으로 고품격 공연 콘텐츠 기획 필요

##### 국악 지식 서비스 구현 체계 마련 필요

-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환경에 부응하는 국악콘텐츠 생산 및 활용 기반 미비
- \* 40만점 이상의 보유 콘텐츠와 국악 관련 정보를 국내외 수요자가 직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 마련 시급

### 1-1. 전통에 기반한 공연 활성화

- ◇ 전통예술의 보존 및 계승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순수 전통예술 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

#### □ 예술단 역량 집중 공연 프로그램 기획

- 연주단별 정기 공연 개최
  - 민속악단 '우리가 사랑하는 민간 풍류'(8월), 창작악단 '실내악 프로젝트-나무 곁에 눕다4'(9월), 무용단 '세상의 춤, 시간의 춤'(9월), 정악단 '우리가 사랑하는 정악 풍류'(9월)

- 연주단별 브랜드 공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
  - 연주단별 전략기획 TF 운영(분기별)
  - 기존 작품 외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 및 고도화
- 지방국악원별 대표 작품 기획
  - (민속국악원) 우수작품 리뉴얼을 통한 대표작품화
  - (남도국악원) 남도예술종합극 제작, 지역 고택 및 유명관광단지 거점 공연
  - (부산국악원) 개원 10주년 기념공연, 한류상설공연

#### □ 서초동 청사 30주년 기념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 발굴

- 서초동 청사 30주년 공연(4월)
  - 민속악단 '성주야, 성주로구나', 창작악단 '이음을 위한 기원'
- 연주단 합동 공연으로 종합예술인 국악의 독창성 부각
  - 우수 창작극 재공연 '현의 노래'(7월)
  -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 '세종조 회례연'(5월), '까막눈의 왕'(10월)
- 문헌·의례 등을 활용한 복원 공연으로 국악의 정통성 회복
  - 『원행을묘정리의례』 재현 <태평서곡> 수정·보완 공연(12월)

### 1-2. 공연 프로그램의 다변화와 특성화

- ◇ 상설공연과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로 국악 향유 확대

#### □ 상설 공연 내실화를 통한 전통 공연의 다양화

- 연주단 공연 레퍼토리 지속 발굴, 공모 공연의 전통적 요소 강화
  - 수요충전, 목요풍류, 금요공감, 토요명품 공연 (연중)
- '문화가 있는 날' 관련 대중성과 품격 있는 공연 제공
  -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(매월 마지막 수요일)
- 어린이·가족 대상 상설공연 운영으로 국악 친밀감 형성
  - 토요국악동화(연중), 겨울국악동화(1~2월)

□ **공연장 특성에 맞는 기획공연과 교류공연**

- 자연음향 공간에서의 스테디셀러 창극 시리즈 작은창극 '화용도 타령'(6월)
- 본원과 지방 본원의 교류공연으로 콘텐츠 다양화
  - '춘향실록'(민속) 서울 공연(2월), '한국의 춤, 부산영남을 바라보다'(부산) 서울 공연(3월), '뽕뽕뽕 방귀쟁이 뽕함마니'(남도) 서울공연(5월), '꼭두'(서울) 부산 공연(10월)
  - 작은창극 '화용도 타령' 공동제작 및 공연(서울 6월·남원 7월)

□ **국악콘텐츠의 관광 상품화**

- 영화·국악 융복합 작품 '꼭두'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
  - 부산국제영화제 연계 지방 공연(10월/부산), 서울 재공연(11월)
- 국악원 방문 관광객·주요외빈 대상 고품격 국악 패키지 제공
  - 공연·체험·전시관람 및 인문학과 연계한 '럭셔리 트래블 마켓' 개발
    - \* 서초구 연계 관광정보센터 내 국악 홍보관 운영 및 문화예술 투어 개발
- 지역 관광 연계 공연상품 개발
  - 한류상설공연(부산), 목요 광한루원 음악회(민속)

**1-3.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국악학 및 국악기 연구**

- ◇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개발 및 국악 보존 강화를 위한 한국음악학 연구
- ◇ 창작음악 활성화를 위한 악기 개선 등 국악기의 과학적 연구

□ **(국악학) 보편적 연구 확산을 위한 기반 연구**

- 국악학 연구 기반 확대 및 심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

<b>기초자료</b>	▲기사진표리진찬이래 및 고악보 영인, ▲국악원논문집 발간, ▲국제전통음악학회 동아시아 학술대회(ICTM MEA) 개최(8.21~23)
<b>통일대비</b>	▲한민족음악총서 발간 및 북한음악학술회의 개최, ▲재외동포 원로 예술가 기술 채록(일본, 카자흐스탄), ▲학교 국악교육을 위한 자료(악보 등) 표준안 개발 및 보급
<b>인접분야</b>	희귀 자료(Robert Garfias 기증) 분석 연구

- 국악 향유 확대를 위한 정책기반 연구, 학술지원

<b>정책기반</b>	▲국악연감 발간, ▲국악교육 현황 통계 조사, ▲국악 산업 지표 설계 연구, ▲공연서비스 다양화 연구, ▲국악 관련 IT 활용 연구, ▲국악공연자막 표준화
<b>학술지원</b>	▲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지원, ▲서초 이전 30년 기념 국악학 학술회의 개최

□ **(국악기) 악기 연구의 과학화 및 창작음악 지원**

- 보유 특허\* 민간 제작업체로의 기술이전 및 악기 제작 아카데미 운영
  - \* 보유특허(3건): 합죽대금 제작방법, 음고 조절이 가능한 나각, 실내악용 태평소
- 악기의 기초 음향학적 연구를 통해 창작 국악 활성화 마련
  - 음계 및 음량 연구, 자연음향 공연 환경의 악기 개선 연구
  - 공연 레퍼토리 다양화를 위한 고악기 복원 및 활용
- 창작음악 활성화를 위한 실용서 발간 및 렉처콘서트 개최

**1-4. 국악콘텐츠의 체계적 수집 및 서비스 고도화**

- ◇ 고품질 콘텐츠의 전략적 수집 및 관리, 전통문화 원형보존 환경 안정화, 온오프라인을 통한 향유 서비스 확대

□ **국민의 향유 확대를 위한 콘텐츠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**

- 온오프라인 활용을 위한 국악 콘텐츠 수집 및 활용체계 마련
  - 국악원 주요 공연을 활용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구축
  - 국내외 기관·단체·개인 등 국악분야 전반의 콘텐츠 활용을 위한 자료현황 조사·연구 및 수집
- 보유 기록물 디지털화 및 저작권 관리 강화
  - 보유 자료의 디지털화, 저작권 관리를 통한 콘텐츠 활용의 권리 확보

□ **온라인 콘텐츠서비스 고도화 및 국내외 공유협력 네트워크 구축**

- 디지털국악아카이브시스템 서비스 강화
  - 이용자가 국악원 소장 콘텐츠 및 DB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
- 콘텐츠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온라인 공유 및 전시
  - (국내) 박물관, 아카이브, 자료실 소장 콘텐츠 정보 연계 및 공유
    - \*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, 국립무형유산원, 국립극장, 공공누리 포털, 문화데이터 광장, 도서관 등
  - (국외) 포털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MIMO\* 가입 추진
    - \* MIMO(Music Instrument Museums Online) : 세계 악기박물관 온라인 네트워크로, 가입된 세계 29개 박물관 상호간 소장 악기정보에 대한 온라인 공유



## 2 향유의 일상화

### 현황 및 문제점

#### 계층별, 향유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

- 수요자별 세분화된 국악 프로그램 부족 및 대중들의 인지도 저조

#### 일상생활 속에서 듣는 우리음악 개발 시급

- 동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표현 및 국악에 대한 인식 부족

#### 문화향유 접근성 강화 및 고객 서비스 확대

- 환경 개선 추진 (공연연습장 건립, 박물관 개편, 예약당 리모델링)

### 2-1. 국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

◇ 국악의 저변 확대 및 일상에서 즐기는 국악 생활문화 시대 실현

#### □ 국악 교육·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

- 교육기관과 연계한 국악교육 기반 강화(교육부·교육청)
  - 자유학기제 연계 국악·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(수시), 교원대상 직무연수(30시간/60시간, 총4회), 청소년 국악오케스트라 활성화 지원, 초등학교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'국악배달통(11개교, 307학급 총 6,832명) 등
- 생애주기별 및 상시 국악교육·체험 운영
  - 유아국악체험, 어린이 국악교실 '푸르미르' 운영, 청소년 교육체험, 가족국악강좌, 50+ 재단 교육 지원, e-국악아카데미(온라인 국악 학습 사이트)
- 소외계층 대상 등 찾아가는 국악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
  - (소외계층) 장애청소년 국악강좌(6개교), '기적의 도서관'(남도), 특수학교 국악교육지원(부산)
  - (찾아가는 교육) 찾아가는 국악원(3~11월, 남도)
- 국악애호가 양성을 위한 국악아카데미 운영
  - 일반인 과정(12회)

#### □ 청소년 대상 국악인재 발굴 및 콘텐츠 개발

- 국악 감수성 개발을 위한 창작 국악동요 작품 공모전(5월) 및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대회 개최(8월)
-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(3월~4월) 및 온나라 전통 춤 경연대회 개최(4월)
- 청소년(초·중·고) 국악관현악 축제 개최(9월)
- 청소년 대상 작은창극 만들기 '틴틴 창극교실'(민속, 4월~6월)

### 2-2. 생활국악 확산 및 콘텐츠 개발

◇ 생활 속 다양하고 밀접한 축제, 콘텐츠 개발로 전세대가 국악을 즐기고 문화적 소통을 실현하는 계기 마련

#### □ 생활 속의 우리음악 개발

- 국악교육자료 제작·보급으로 눈높이형 국악교육 실현
  - 어린이집, 유치원에서 활용할 어린이 국악극 교재 개발 및 누리과정 연계 영·유아 전래민요 가창집 제작
- 생활국악 확산 및 콘텐츠 개발
  - 전국 초·중·고 대상 교가 국악반주 보급(10개교), 국악소재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제작 및 보급
- 작곡 공모제를 통한 국악 활용, 확산
  - 실내악곡, 관현악곡 공모로 방송, 드라마, 영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악 음원개발

#### □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마련

-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어린이 국악 축제
  - 겨울방학 어린이 국악극(1월, 12월), 어린이날 국악 대잔치(5월)
- 민족 고유의 명절과 절기에 따른 공연
  - 설 공연(2월), 추석 공연(9월)
- 가족을 위한 야외극장 여름축제
  - 연희, 퓨전국악 등으로 이루어진 "우면산 별밤축제"(6~9월)
- 미래 국악예인들의 교류기회 확대 및 국악계 플랫폼 역할
  - 대학국악축제(10월)



## 2-3. 문화향유 접근성 강화 및 고객 서비스 확대

- ◇ 문화향유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 사각지대 해소로 삶의 질 제고
- ◇ 전시·공연 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

### □ 문화향유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 사각지대 해소

- 소외계층(지역) 대상 국악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추진
  - 장애청소년 국악강좌 및 오지·낙도 대상 '즐거운 국악소풍' 등 운영
  -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과 기관, 시설을 찾아가는 공연 '달리는 국악무대'(민속)

### □ 환경 개선으로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

- 공연연습장 건립 추진
  - 시설 노후화를 해소하고 국악연주단 연습공간 마련을 위한 연습동 건립(실시설계 및 건립공사) 추진
    - \* 설계용역 완료('17.11월~'18.9월), 건립공사 착공 및 공사('18.11월~2020)
- 국악박물관 환경개선 및 상설전시 개편
  - 안전시설 강화 및 전시실 개선 공사 추진(6월~11월)
  - 문화정보기술(ICT)을 활용한 전시기법 도입 등 상설전시 전면 개편('18.6.~'19.6.)
- 예약당(공연장) 리모델링을 위한 기초조사 추진
  - 노후화된 공연장 리모델링을 위한 내·외부 의견 수렴, 유사 규모의 외부 공연장 환경 조사, 소요예산 등 기초조사 실시

공연연습장 건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업기간) 2017년 ~ 2020년(4년간)</li> <li>• (사업규모) 연면적 6,080㎡ / 지하6층</li> <li>• (총사업비) 193억 원(설계비 10, 감리비 15, 공사비 168)</li> <li>• (주요시설) 연습실, 악기보관실, 공연지원실(샤워·탈의실, 예술감독실, 휴게실 등), 기계전기실, 주차장, 공용공간 등</li> </ul>
국악박물관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업기간) 2018년~2020년(3년간)</li> <li>• (면적) 1,597.23㎡(약 252평)</li> <li>• (총사업비) 36.3억 원</li> <li>• (전시실) 주제별 8실(궁중음악실, 원류음악실, 서민음악실, 선비음악실, 세종음악실, 궁중음악인실, 근현대음악실, 입체영상실), 기획전시실 1실 등</li> <li>• (주요시설) 수장고, 자료실, 아카이브실, 창의방(교육공간), 관람객쉼터(휴게공간) 등</li> </ul>
예약당 리모델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업기간) 2019~2022(4년간)</li> <li>• (총사업비) 365억 원(운영비 4, 설계비 17, 감리비 24, 공사비 320)</li> <li>• (주요내용) 객석·무대 리모델링, 냉난방 등 편의시설 개선</li> </ul>

## 3 세계 속 국악 교류

### 현황 및 문제점

#### 세계인과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연 기획 필요

- 국악의 예술성과 가치는 인정받으나, 여전히 낯설고 특수한 예술 장르로 인식
  - 클래식, 현대음악, 재즈 등 타 예술 장르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공연 기획 필요

#### 한국학 및 민족음악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국악플랫폼 역할 강화

- 해외 한국학연구 활성화 추세에 부응하는 한국음악자료 생산·보급 기반 취약
  - \* 해외 전시, 국제학술교류 활성화, 국악 작곡 및 국악학 연구 기초자료 제작 보급 필요성 대두

## 3-1.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악

- ◇ 해외 공연장 및 축제 공연교류로 국제음악 시장 진출

### □ 해외 공연장·음악인 공연 교류

- 세계 유수 극장·문화원과 연계한 전통공연 진출
  - 독일 뮌헨 바이에른 라디오(BR) 등 초청 공연 및 현지 녹음 방송(3월)
  - 벨기에, 러시아, 홍콩 문화원 연계 공연(3월, 9월, 10월)
  - 대만 국립전통예술중심(국립극장) 업무협약 체결 및 초청 공연(11월)
- 서울아트마켓을 통한 국제 음악 페스티벌 진출
  - 멕시코 콤프레 타히 페스티벌 초청 공연(3월)
    - \* 콤프레 타히 페스티벌 문화도시 '엘 타진'에서 매년 70명의 아티스트 참여, 50만명 방문
  - 태국 바이팜(BIPAM) 초청 공연(11월)
- 아·태 거점 교류 공연 활성화(부산)
  - 한민족 전통예술 축제(4월)
  - UN 한국참전국 교류공연(6월, 미국 뉴욕 UN본부)
  - 한·중·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폐막공연(12월)

## □ 세계 속 국악 가치 확산

- 국악 확산을 위한 국악교육 및 자료 보급
  - 재외문화원, 세종학당, 한국학 관련 대학 등 해외 국악진출 거점 지역 교육 강사 파견 및 자료 보급(연중, 14개국)
  - 주한외국인 국악강좌, 외국인 유학생 및 관광객 대상 국악 교육 프로그램 제공
- 해외 국악보급거점지역 예술인 대상 국악 연수
  - 해외 동포예술인 및 단체 모국체험연수(연중, 17개국, 남도)
  - 해외 전문음악인 음악학자, 작곡가 등 단기 국악연수(7월)

## □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전통예술 공연

-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및 기념 공연
  - 종묘제례악(2.2~2.3. 1,125명 관람, 한국의 문화유산(2.7~2.8. 425명 관람)
-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공식 행사 참가
  - 패럴림픽 개막식 문화공연 1. 무고 공연 참가 (3.9. 25,000명 관람)

## 3-2. 국제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

◇ 국내·외 네트워크 구축 및 신한류 구축을 위한 국악의 영역 확대

## □ 세계 민족음악 교류 활성화

- 해외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
  - 스페인 바르셀로나음악박물관 한국악기 특별전 개최('17.11.~'18.6.)
  - UNESCO, ICTM, SEM AKMR, Asia Society, MIMO 등과 연계망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
  - MIMO(Musical Instrument Museums Online) 가입 추진
  - 국제전통음악학회 동아시아음악 연구회 국제학술대회(ICIM MEA) 개최(8월)
- 국악 관련 다국적 언어 지원 서비스
  - Korean Musicology Series 9 <Jeongga> 발간
  - 성악 장르 노랫말 현대화 및 번역사업(국악성악곡 노랫말 풀이집 2)
  - 작곡을 위한 국악기 활용서 영문 발간(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)